

# 광주시 내년 예산 4조5135억 편성

### 올보다 11.7% 늘어 ... 다음달 시의회 본회의서 의결

### 민생안정·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재원 중점 배분

광주시는 올해보다 4737억원(11.7%)이 증가한 4조5135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지난 1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3960억원(12.1%)이 증가한 3조6692억원, 특별회계는 777억원(10.1%)이 증가한 8443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증가 등으로 1488억원(11.3%)이 늘었고, 세외수입은 부담금 수입 감소 등으로 67억원(7.6%)이 줄었다.

국가 이전재원인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증가로 935억원(14.4%)이 증가했고, 국고보조금도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1207억

원(12.1%)이 늘었다.

세출예산은 새 정부 대표정책인 일자리 창출, 맞춤형 복지, 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분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미래먹거리와 관련된 친환경자동차, 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 융합 등 3대 벨리사업에 중점 배분했다.

또 민선 6기 역점시책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청년정책, 마을공동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반영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주요 역점시책별 예산 배분내역을 보면 일자리 창출로는 청년일자리 분야 33억원, 여성분야 163억원, 장애인활동 지원 435억원, 참여형 복지 일자리 20억원, 일방형 및 시간제 일자리 등 52억원, 취업취

약계층 일자리 430억원, 문화예술분야 54억원, 사회안전망 일자리 846억원, 마이스 서비스 산업 36억원, 자동차산업 육성 498억원, 로봇기전산업 육성 40억원,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 106억원 등 3632억원을 배분했다.

문화콘텐츠 융합사업으로 우수선수 육성 및 전국체전 46억원, 아시아문화전당 광주프린지페스티벌 20억원, 남도관광 홍보마케팅센터 조성 20억원, 생활체육시설 조성 19억원, 고싸움놀이전수교육관건립 19억원 등 1220억원을 편성했다.

민선6기 역점시책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청년수당 30억원 등 청년정책에 90억원, 마을공동체사업 13억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에 52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68억원, 사회적기업사업개발지원 19억원, 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 9억원 등 재난안전관리 및 복지사각지대 해

소 등 민생안정분야에 266억원을 반영했다.

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국고보조 시비부담, 자치구와 교육청 교부금 지원, 지방선거 부담금 등 1조6890억원은 2018년도 예산에 반영했으나, 나머지 법정경비 1020억원의 부담을 미룬 상태로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고교무상급식 확대 관련 시비 추가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새 정부정책과 연계해 예산을 편성했으며, 민선 6기 시정 성과를 거두기 위한 사업과 민생안정, 경제 활성화 등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며 “건전한 재정운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은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분권 개헌 앞두고 준비단 구성

### 16일 첫 회의 개최 ... 세계 개혁 요구

문재인 정부가 내년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광주시가 공직자와 전문가들로 ‘지방분권 준비단’을 구성하고 오는 16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지역균형발전을 근간으로, 광주의 특성을 감안한 지방분권을 중앙정부에 요청하기 위해 각 분야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는 재정자립도가 최하위 등 열악한 재정여건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 세계 개혁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단은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자치행정국장, 예산정책관과 세정담당관이 참여하고 정책기획관실에서 운영한다. 행정 외부에서는 지방행정, 재정분권, 자치경찰 분야 전문가로 류한호 광주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 김병도 한국거버넌스학회 이사, 임상수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 최순우 광주대 경찰법행정학

준비단은 지방분권 세부과제 검토뿐 아니라 세계분야 개혁 시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의견수렴 및 공유를 통해 정부 지방분권 로드맵에 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 시방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13년에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동안 지방분권을 위해 시민 주도의 지방분권운동을 펼쳐왔다. 대표적으로 광주지방분권협의회를 출범했으며 자치구와도 자치분권 협의회를 통해 8개의 자치분권 과제를 발굴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광주의 경우 6대 광역시 중 재정자립도(40.7%)가 최하위이고, 1인당 지방세 또한 81만4000원 수준인 반면, 사회복지비 편중비율은 6대 광역시 중 최고치인 36.9%(1조4909억원)로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광역시의 국비회보액을 살펴보면 광주가 1조5649억원에서 1조8292억원으로 2643억원이 증가한 데 그친 반면 대전 5330억원, 울산 7148억원, 부산 9218억원, 인천 4472억원 등이 늘었다.

준비단은 “공사비가 특별히 늘어난 근거가 약하다”면서 “시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관공공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광주시의회 유정심(국민·남구) 의원은 “언제든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도로 위 시한폭탄, 포트 홀 발생으로 인한 공공기관 보상액이 폭등하고 있어 원인 분석과 함께 적기에 보수·보강을 통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하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80억 더 투입돼

### 도로 위 시한폭탄 ‘포트 홀’ 사고 보상 폭등

### 광주시 행정사무감사

광주지역 하천공사의 설계변경으로 80억원의 예산이 더 투입됐고, 도로 위 ‘포트홀’도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주경남(민주·서구) 의원은 지난 10일 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천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해 부풀려지는 공사비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주장했다.

주경남 의원은 “공사비가 특별히 늘어난 근거가 약하다”면서 “시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관공공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광주시의회 유정심(국민·남구) 의원은 “언제든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도로 위 시한폭탄, 포트 홀 발생으로 인한 공공기관 보상액이 폭등하고 있어 원인 분석과 함께 적기에 보수·보강을 통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기준 이미 공사가 완료된 3곳은 평균 8회에 달하는 설계변경으로 80억원의 예산이 더 투입됐고, 도로 위 ‘포트홀’도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 도로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9월 1일 현재 광주시 소관도로인 4차선 이상도로와 차차구 소관도로인 2차선 이하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은 2013년 1만5484건, 2014년 1만618건, 2015년 1만4066건, 2016년 1만7648건, 2017년 8083건 등 5년간 6만5899건이 발생했다.

유정심 의원은 “특히 자치구 소관도로 총 연장 1131km이나 5년간 2만 3323건인 반면 광주광역시 소관 도로는 총 연장 512km인데 반해 최근 5년간 4만 2576건이나 발생한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이용 도로 현황에 따른 특성화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16년 2월 준공된 풍영정천 고항의 강 조성사업은 최초 공사비 32억1242만에서 28% 증가된 41억1629만원으로 증액됐고, 같은 해 3월 준공된 장동천 개수공사 사업은 최초 공사비 26억218만원에서 67% 증가된 43억4427만원으로 늘었다.

또 2016년 8월 준공된 석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최초 107억5000만원에서 34% 증가된 144억4837만원으로 증액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난 10일 서울시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 전라도 방문의 해’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전라초풍’ 점등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 다섯번째부터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 윤장현 광주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광주시 제공>

# 천년의 시간 여행... ‘2018 전라도 방문의 해’ 선포식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는 공동으로 지난 10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2018 전라도 방문의 해’ 선포식을 열었다.

호남권 3개 시·도는 선포식에서 내년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서로 협력해 방문객을 유치하고 전라도가 한국의 미래 천년 관광을 이끌어간다고 선언했다. 선포식에는 윤장현 광주시장,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 송하진 전북지사, 박상구 한국방문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익주 서울시립대 교수의 ‘천년 스토리’ 강연, 비전 영상 상영, 방문의 해 슬로건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 순으로 진행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전라도는 예로부터 문예와 맛이 발달한 당당한

지역이었다”며 “방문의 해를 맞아 전라도의 우수한 역사·문화·생태자원을 활용해 공감하는 관광콘텐츠를 개발, 궁정의 예나지를 모은다면 상생 화합의 공동체로서 당당하게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다.

3개 시·도는 앞으로 전라도 대표 관광지 100선을 골라 명품 여행상품 등으로 관광자원화할 방침이다. 전라도 인문과 역사를 체험하는 청소년 문화 대담합단 운영, 문화예술 프로그램 연계형 ‘전라도 아트&버스킹 페스티벌’ 개최 등 9개 분야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또 11월 춘천을 시작으로 대전(18일), 대구(25일), 부산(12월2일), 인천(12월9일) 등에서 길거리 순회 홍보를 펼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재선충병 막아라”... 전남도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전남도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 추세를 보임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소나무류 이동을 특별단속 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신안군 압해읍 등 전국 15개 시·도, 113개 시·군·구로 퍼졌다. 전남도는 제재소, 조정업체, 화목 사용농가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5294곳과 주요 도로변에서 무단으로 이동되는 소나무류를 중점 단속한다.

반출금지 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하려면 미감염 확인증이 필요하며 반출 금지 구역이 아닌 지역은 해당 시·군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부받아야 한다. 무단 이동이 적발되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지 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남도는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으려고 지난 3월까지 피해 고사목 등 1만 3000여 그루를 제거했다. 집중 발생지역 120ha의 나무를 모두 베고, 925ha는 예방 주사를 놓는 등 방제작업을 벌였다.

최근 신안 압해읍 일원에서 드론·산불 임차헬기 7대를 동원해 항공 관찰을 하고 있다.

죽어가는 소나무를 발견하면 전남산림자원연구소(☎ 061-338-4242)로 신고하고, 무단 이동 등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산림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후원 | KORAIL 광주본부 SR

| 본 상품은 우수해양관광상품공모전에 선정된 상품입니다 |

## 전복과 함께하는 땅끝마을·슬로시티 청산도여행 1박 2일

### 1일차

- ▶ 용산역(07:20) / 광명역(07:40) 도착 후 KTX 탑승
- ▶ 수서역(07:10) / 지제역(07:30) 집결 후 SRT 탑승
- ▶ 용산역(07:49) / 광명역(08:04) / 수서역(07:40) / 지제역(07:59) 출발
- ▶ **광주송정역 도착 후 출발(09:37)**
- ▶ 송호마을 도착 후 중식(12:00)
- ▶ 송호리해수욕장, 전복 양식장 견학(12:40)
- ▶ 송호마을 출발(15:00)
- ▶ 대한민국 국토 최남단 위치한 해남 땅끝마을 관광
- ▶ 땅끝 모노레일이용시 개별부담입니다.
- ▶ 땅끝마을 출발(16:30)
- ▶ 숙소 도착 후 배정 및 자유식(17:00)

※교통편: KTX or SRT 전용차 / 중식만 제공

### 2일차

- ▶ 조식 후 출발(07:00)
- ▶ 완도여객선터미널 도착(08:30)
- ▶ 완도여객선터미널 출발(09:00)
- ▶ 슬로시티 청산도 도착 후 관광-서편제, 봄의왈츠 세트장(09:40)
- ▶ 청산도 자유중식 후 출발(13:00)
- ▶ 완도여객선터미널 도착(13:40)
- ▶ 다산초당·백련사 도착 후 관광(15:00)
- ▶ 백련사 출발(17:00)
- ▶ 광주송정역광장 도착 후 송정 1913시장 관광 및 자유 식(18:00)
- ▶ 광주송정역(KTX-19:39 or SRT-19:39) 출발(19:24)
- ▶ 광명역(20:54) / 용산역(21:10) / 지제역(21:05) / 수서역(21:32) 도착

※교통편: KTX or SRT 전용차 / 조식만 제공

출발역	성인			소인
	2인실	3인실	4인실 이상	
용산역 - 수서역	250,000	245,000	240,000	190,000
광명역 - 지제역	245,000	240,000	235,000	185,000
광주송정역	160,000	155,000	150,000	140,000

**참고사항**

- 최소출발인원: 10명 이상 출발 조건
- 포함사항: 왕복 KTX 열차비, 차량비, 숙박비, 1일째 중식 2일째 조식, 양식장 현장견학비
- 불포함사항: 여행자보험, 일정표상 식사3회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의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보관이 불가능하므로 여행사에서는 여행상품 운영시 여행자보험에 대해 가입할 수 없어 개인이 직접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연계버스는 출발인원에 따라서 차종이 변경됩니다. (승합차/중형차/대형차)
- 상품별 최소 출발인원이 부족시 행사가 취소될 수 있으며, 최소 출발 4일전에 연락드립니다.
- 취소 환불규정: 여행출발 3일전 취소시 80% 환불, 2일전 취소시 50% 환불, 1일~당일 환불불가
- 홈페이지 접수: www.daewontour.com(대원여행사)

계좌번호: 농협 301-526-7000-191 (주)대원여행사

해외여행 · 국내여행 · 할인항공권 · KTX기차표 · 허니문 · 단체여행 · 골프투어 · 기차여행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76 자승빌딩 1층 (현대자동차빌딩 옆) | 메일: daewonkr@hanmail.net

Tel. 062)526-7000 H. 010-9715-1000 www.daewontour.com

**(주)대원여행사**